

특허청,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원 나서

- 특허청-한국무역협회, 우리기업의 조기 상표권 확보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과의 정책 간담회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과 한국무역협회(회장 윤진식, 이하 “KITA”)는 5. 26.(월) 14시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타워(서울 강남구)에서 지식재산 기반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표·디자인 분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.

간담회는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대외 통상환경의 급변화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활용 역량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,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상표·디자인 등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,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이번 정책간담회에는 화장품, 주방용품, 생활용품,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·중견·대기업의 실무자 및 지재권 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할 계획이다.

간담회에서는 상표·디자인 해외출원제도 및 우선심사제도* 소개,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된다. 또한, 해외 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포함하여, 상표·디자인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.

* 상표 사용 중, 해외출원의 기초출원 및 분쟁대응 등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해 주는 제도

아울러, 기업들이 해외 수출 현장에서 겪는 ▲지재권 확보의 어려움, ▲상표 무단선점 및 침해 등 지재권 관련 애로사항, ▲국내 상표권(디자인권)의 조기 확보 필요성, ▲글로벌 기준과의 차이로 인한 제도적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경청할 예정이다.

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계약, 상표 무단선점으로 인한 분쟁 대응 등 측면에서 상표권의 조기 확보와 전략적 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, 우리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표권을 적시에 확보하고,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특허청-KITA 공동 수출기업 현장소통 정책간담회 개요

※ 사진은 행사 후 배포 예정

담당 부서	상표디자인심사국	책임자	과 장	엄태민 (042-481-5265)
	상표심사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조문상 (042-481-5274)

□ 추진 목적

- 상표권 등 지재권 관련 수출 현장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권리 조기확보 지원 등 제도개선 방안 모색

□ 간담회 개요

- (일 시) '25. 5. 26.(월) 14:00 ~ 16:00
- (장 소) 한국무역협회(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소회의실)
- (주요 참석자) 상표디자인심사국장, 상표심사정책과장,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담당 사무관, 무역협회 FTA·통상종합지원센터, 수출기업 7개사 지재권/해외수출 관련 팀 담당자 등 15명

□ 주요 일정(안)

시 간	주요 내용	비고
14:00~14:05 (5')	■ 국장님 인사말씀	
14:05~14:15 (10')	■ 해외상표 출원 및 우선심사제도 소개	
14:15~14:20 (5')	■ 마드리드 종속성(Dependency)제도 동향	
14:20~14:25 (5')	■ 디자인 제도(우선심사제도 등) 소개	
14:25~15:55 (90')	■ 지재권 간담회(애로사항 청취)	
15:55~16:00 (5')	■ 마무리 말씀 및 기념사진 촬영	

□ 참석기업 명단

기업 구분	기업명	주력분야	주요 상표권
중소기업	(주) 브랜드501	화장품 등	Dr.Melaxin, BARBER501 등
중소기업	(주) 리빙아이콘	주방용품 등	Livingicon, KKOMDIMOM 등
중견기업	(주) 에치와이	유제품 등	아쿠르트, 잇츠온 등
중견기업	(주) 삼양식품	라면, 식품 등	삼양라면, 불닭볶음면 등
대기업	(주) LG생활건강	화장품, 생활용품 등	수려한, 쏘롱 등
대기업	(주) 농심	라면, 식품 등	농심, 추다면 등
대기업	(주) 대상	식품 등	종가집, 미원 등